

새해 첫날 민생사업 3,306억원(역대 최고) 집행

- 새해 1호 집행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‘온누리 상품권’ 등 11개 사업-
- 민생 경기회복을 위해 1분기부터 전례없는 속도로 신속집행 추진-

정부는 민생·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3,306억원의 민생사업을 발굴, 집행할 예정이다.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·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.

* 새해 첫날 집행규모(억원): ('20년)1,090 ('21년)1,085 ('22년)693 ('23년)759 ('24년)1,315

새해 1호 집행사업은 ‘소상공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’이 되는 ‘온누리 상품권’ 사업(500억원) 등 11개 사업이다. 세부적으로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(200억원),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(155억원) 등 청년·노인층 지원과 함께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50억원) 등 취약계층 지원·소비진작을 위한 사업을 신속집행한다.

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1월말에서 1월초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고, 수출바우처 발행(247억원) 등의 집행 시점도 새해 첫날로 앞당긴다. 또한,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(300억원)은 설 연휴 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집행시기를 단축한다.

정부는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과 더불어 올해 1분기부터 민생·경기진작 사업*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하여,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.

* 연간 85조원(수준)의 핵심 민생·경기 진작사업을 선정한 후 1분기에 40% 이상 집행

[참고] '25.1.2일 집행사업 사례

계층/분야 (소계, 억원)	부처	세부사업명(+내역사업명)	금액 (억원)
총계			3,306
①민생경제 회복(2,759억원)			
소상공인 (500)	중기부	• 온누리 상품권	500
취약계층 (1,050)	복지부	• 의료급여	500
	국토부	• 주거급여지원(주거급여지원)	500
	국토부	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	50
청년 (465)	교육부	•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(주거안정장학금)	265
	국토부	• 청년월세한시지원	200
노인 (744)	복지부	•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	560
		•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	155
		• 노인단체지원(대한노인회운영지원)	29
②경기진작(547억원)			
소비진작 (547)	농식품부	• 농식품소비기반조성	300
	산업부	• 수출 바우처	247

* 1.2일(목) 실제 집행사업과 규모는 부처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

총괄	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	책임자	과 장	신대원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송현정 (hjsong123@korea.kr)
			사무관	구본균 (koo382@korea.kr)